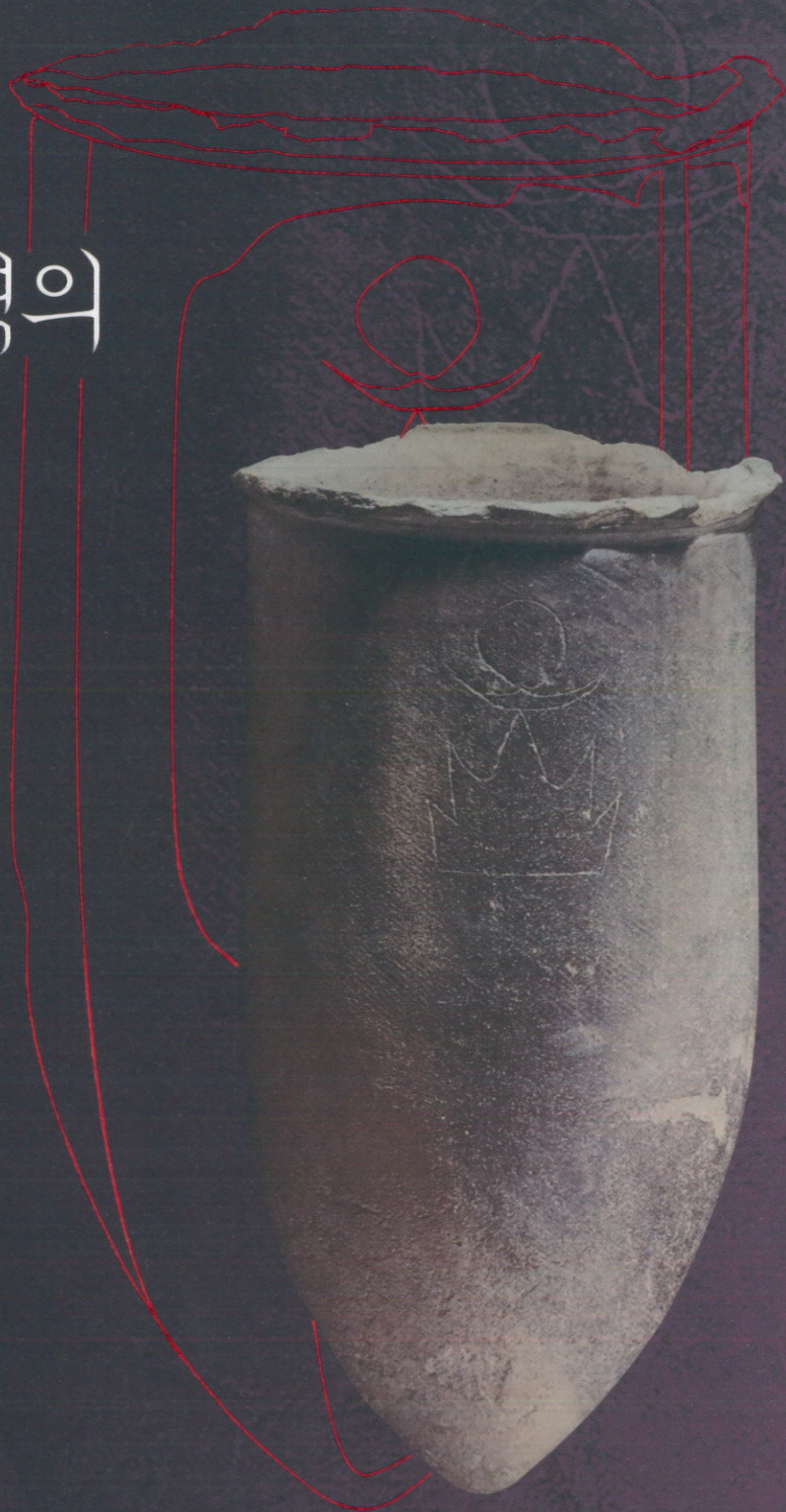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총서 73

중국 산둥 지역의 동이

동북아역사재단
한중관계연구소 편



동이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동이는 기원전 11세기 서주시대 청동기 명문에 등장하는 동이와
3세기 이후 『후한서』·『삼국지』 등 중국 사서에 등장하는 동이가 있다.

이 두 동이는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최초로 국내외 '동이' 전공 학자들이 모여 중국 산둥 지역의
동이 문화와 역사, 그 이웃 지역인 요동·한반도와의 교류에 대해 짚어보았다.

서주시대 청동기 명문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동이는 한참 후에 중국 사서에
동이열전으로 편제되어 다시 등장한다. 전자의 동이는 명문·유가 경전 등에
나타나는 지역범위와 시기를 고려하여 '동방동이'·'선진동이'라고 한다. 후자
의 동이는 중국 동북 3성·한반도·일본열도를 일컫는 지리적 범위를 고려하여
'동북동이'라고 한다.

이 책은 우리 고대국가가 속한 동북동이를 알아보기 위한 첫 단계로, 앞선 산
둥 지역의 동이를 살폈다. 필자들은 모두 동이 혹은 동이와 관계를 맺은 지역
의 유물과 문자자료를 연구하는 고고학자·금석문학자·갑골문학자·역사학자
들이다. 이들은 동이를 특정한 종족집단으로 연결시키는 이분법적 논법 대신,
동이 자체에 대한 고찰을 통해 그들의 광범위한 역동성과 다양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값 24,000원



93910

9 791157 071609

ISBN 979-11-5707-160-9

중국 산동 지역의 동이

초판 1쇄 인쇄 2018년 1월 25일

초판 1쇄 발행 2018년 1월 31일

엮은이 동북아역사재단 한중관계연구소

펴낸이 주해숙

펴낸곳 역사공간

등 록 2003년 7월 22일 제6-510호

주 소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1길 18 원오빌딩 4층

전 화 02-725-8806, 070-7825-9900

팩 스 02-725-8801

E-mail jhs8807@hanmail.net

© 동북아역사재단, 2018

ISBN 979-11-5707-160-9 93910

- 이 책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떤 형태나 어떤 방법으로도 무단전제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CIP제어번호 : CIP2018002290)
- 책값은 뒷표지에 있습니다.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 이 책은 동북아역사재단의 지원을 받아 간행한 것입니다.

중국 산동 지역의 동이

박선미

박재복

왕칭

데이빗 코헨

이영문

이청규

심재연

이유표

동북아역사재단 한중관계연구소는 사료의 자의적 해석으로 인한 역사왜곡을 지양하고 한국고대사의 기반을 굳건히 하여 한민족 역사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소에서는 고조선을 비롯하여 부여·고구려·발해 역사 연구와 자료 구축을 통해 중국의 이른바 ‘동북공정식 역사인식’의 문제점을 밝혀내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작업을 다각도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결과물들은 도서로 발간하거나 디지털자료로 만들어 국내외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역사를 국내외에 알리기 위한 이런 노력은 한국사 왜곡을 막고 우리 역사를 정립하기 위한 것이지만, 다른 면으로 보면 주변국과의 역사갈등을 불식시키고 상호 우호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도 합니다.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명확히 밝히는 작업은 현재의 관점으로 역사를 돌아봄으로써 생기는 오해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역사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역사에 대한 이해 부족이 역사왜곡으로 귀결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연구소에서는 이번에 『중국 산둥 지역의 동이』라는 책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일부 학자들은 산둥 지역의 동이가 동북쪽으로 이동하여 고조선과 고구려를 건설했다는 주장으로 한국고대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하북성과 산둥성 일대에서 발전된 신석기문화와 청동기문화를 모두 ‘동이문화’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산둥 지역에서 발전된 선사문화가 어떤 것인가를 알아보고, 실제로 이것을 동이문화로 볼 수 있는가를 살폈습니다.

잘 알려졌듯이 동이는 우리 민족문화의 형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

다. 서주시대 청동기 명문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동이는 뒤에 중국 사서인 『후한서』와 『삼국지』에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앞선 동이와 뒤에 등장한 동이는 시기적으로 차이가 나고 지리적으로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 두 동이는 서로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학계에서는 이에 대해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직접 관련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이에 대한 전문가의 글은 국내에 많지 않습니다. 2016년 여름 우리 연구소는 동이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하여 국내외 동이 전공 학자들을 초청하여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여기에 실린 글들은 이때 발표된 논고들과 책의 구성상 필요하여 더 추가한 논문들입니다.

이 책의 필자들은 동이 관련 유물과 문자자료를 전공하는 고고학자·금석문학자·갑골문학자·역사학자들입니다. 필자들은 동이에 대한 다양한 자료와 이에 대한 여러 해석을 독자들에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이 독자들에게 동이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조금이나마 넓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귀한 원고를 보내주신 필자들과 외국어 논문을 번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학술회 개최부터 책의 발간에 이르기까지 연구를 기획하고 총괄한 박선미 연구위원에게도 고맙다는 인사를 전합니다. 그 외 이 책이 발간되기까지 실무적인 일을 맡아주신 출판 관계자분들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2018년 1월

동북아역사재단 한중관계연구소 소장 김 현 속

서문

동이(東夷)는 한국인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우리는 동이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동이는 1,000년이 넘는 시간을 달리하면서 서로 다른 지역에 등장하기 때문이다.

동이가 맨 처음 모습을 드러낸 때는 기원전 11세기 서주시대 청동기 명문이다. 서주 초 성왕(成王)대의 엄방정(豐方鼎)이라는 청동기 곁면에 주공이 동이를 정벌했다는 기사가 새겨져 있다. 서주 이후 다른 청동기들과 『상서(尙書)』·『예기(禮記)』와 같은 유가 경전 등에도 동이가 등장한다. 이들 동이는 지금의 중국 하북성과 산둥성 일대에서 활동했던 ‘이족(異族)’이었다. 여기에는 엄(奄)·박고(博古)·래(萊)·양(良)·경(京)·불(不: 邶)·번(樊) 등 무수히 많은 이족 소국들이 있었다. 이들은 서주시대부터 기원전 5세기경까지 소위 ‘중원(中原)’의 ‘동방’, 즉 산둥성·하북성·강소성 북부 일대에서 활동했다. 이에 따라 학계는 이들을 ‘선진(先秦)동이’ 혹은 ‘동방(東方)동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로부터 한참을 지나서 중국 사서에 동이가 다시 등장했다. 3세기에 쓰인 『삼국지』 권30, 「위서」 30 ‘오환선비동이전(烏丸鮮卑東夷傳)’이 그것이다. 『삼국지』를 거의 전재하다시피 한 『후한서』에도 동이열전(東夷列傳)으로 나오는 등 이후의 중국 사서에 한동안 동이가 열전의 일부로 편제되어 기록되었다. 이들 사서의 동이는 부여·고구려·동옥저·읍루·예·한·왜다. 진수보다 100년이나 앞선 시기에 사마천(기원전 145~기원전 86년 추정)은 『사기』를 지었는데, 여기에는 ‘동이열전’이 없고 대신 ‘조선열전(朝鮮列傳)’이 있

다. 『한서』도 마찬가지다. 『삼국지』 이후 사서 동이열전의 주인공인 정치체들은 주로 중국 요령성·길림성·흑룡강성, 한반도, 일본열도에서 활동했다. 이에 따라 학계는 이들을 ‘동북(東北)동이’라고 부른다.

‘동쪽 이민족’을 의미하는 동이, 이 용어는 동이 스스로가 자신을 표현하기 위하여 붙인 이름이 아니다. 중국의 고대국가들이 자신을 높여 화족(華族)이라 하고 자신들과는 다른 이족(異族)을 폄하하고 업신여겨 이(夷)라고 불렀다. 화(華)족과 이(異)족들의 상호교류가 잦아지면서 ‘이(夷)’라는 호칭도 자주 사용하게 되었다. 이족(異族)들은 이족(夷族)이 되어 화족과 사회·경제·정치적 상호작용을 이루었다. 이족(夷族)에는 동이(東夷)뿐만 아니라 회이(淮夷) 등도 있었다.

이와 같이 동이라는 명칭은 중화주의적 관점에서 화족 외의 이족(異族)을 야만인으로 낮추어 부르고자 하는 욕구에서 만들어졌다. 처음에는 중국 하북성과 산둥 지역의 이족을 가리키던 개념이 후대에는 중국 동북 지역의 정치체들을 가리키는 명칭으로 다시 등장한 것이다.

고구려·백제·신라·왜 등을 동이라는 비칭으로 묶은 편목이 사라진 것은 이로부터 한참 후 1300년대에 집필된 『송사』부터다. 이 사서에 동이열전이 사라지고 대신 외국열전이나 혹은 고려열전 등 국가명으로 편제되어 기록되었다. 사이(四夷)·남이(南夷)·이만(夷蠻)·북적(北狄) 등 열전에 편제되었던 여러 나라들도 비로소 타자의 역사서에 자신의 이름으로 기록되었다. 이때도 동이·남이·사이라는 표현은 사서의 내용에 여전히 남아 있었다.

동이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서주시대에 등장하는 동이와 『삼국지』 이후 중국 사서에 나오는 동이는 서로 어떤 관계가 있을까?

오늘날까지도 중국에게 동이는, 문화적으로는 화족의 이족에 대한 교화와 융합으로서, 지리적으로는 서안과 낙양 중심의 황하 중류에서 주변 지역으로의 확대를 의미한다. 최근에는 중화민족을 구성한 주요 종족의 일원으로 동이를 격상하기까지 했다. 한국에게 동이는 민족의 웅대함을 대내외에 과시

할 수 있는 존재로 자리 잡았다. 사서에 동이열전으로 편제된 고구려·백제·신라 등 고대국가를 청동기 명문의 동이와 연결시킴으로써 최고(最高와 最古)로서의 우리 민족사를 그려내고자 했다.

그러나 학계는 서로 다른 지역에서 시기를 달리하면서 동이가 등장하게 된 원인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즉 황하 중류 화북평원을 중심으로 활동한 화족이 동쪽으로 점차 세력을 확장하여 산동 지역을 포괄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동이라는 표현도 사라졌다는 것이다. 이후 한(漢)이 중국 대륙을 다시 통일하면서 한족(漢族) 중심의 국제질서를 재편했고, 이 과정에서 산동 지역의 이족(異族)을 가리키던 비칭이 오늘날의 중국 3성과 한반도 및 일본열도에 있던 이족 국가를 가리키는 비칭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중국 학계도 마찬가지다.

동이는 동북아시아사를 이해하는 키워드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이 전개한 주변과의 대외관계 양상을 살펴볼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학계는 일찍부터 관심을 갖고 연구해왔다. 1950년대 김상기는 「동이와 회이·서융에 대하여」(『동방학지』 1·2호, 1954·1955년)를 학계에 발표하고 산동 지역의 동이족이 동북쪽으로 이동하여 우리 고대국가의 기틀이 되었다고 보기도 했다. 당시는 산동 지역의 발굴자료가 잘 알려지지 않은 데다 이 지역의 고고학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은 상황이었다. 따라서 두 동이를 연결시킨 주장이 단편적인 명문과 전래문헌 및 두 지역의 신화 등에서 보이는 유사성 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론의 여지가 있었지만, 동이를 우리 고대국가와 연결시킨 이른 시기의 연구였다. 이후 많은 학자들이 동이를 주목했고 다수의 글을 발표했는데, 대개 우리 민족과 ‘관계있다’와 ‘관계없다’는 논쟁으로 압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렇다면 동이로 대표되는 산동 지역의 선사시대 문화 양상은 실제로 중국 동북 지역의 그것들과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른가? 이를 알아보기 위한 첫 단계로 먼저 산동 지역의 선사시대 문화와 청동기 및 갑골문 등에 나오는

동이 등을 살펴보았다.

이 책은 ‘관계있다’와 ‘관계없다’로 보는 이분법적인 논법을 지양하고 대신 산동 지역에서 발견된 고고학 자료와 이를 남긴 주민에 대해 알아보고자 했다. 이를 통해 동이로 불렸을 여러 집단 간 혹은 동이와 동이가 아닌 집단 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자 했다. 다양한 스펙트럼을 통과한 동이 연구는 한국사를 새롭게 바라보고 동아시아사를 다시 쓸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이 책은 2부로 구성했다.

1부는 산동 지역의 동이 자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황하 유역의 역사지리적 배경, 선사문화, 청동기 명문과 갑골문 등 출토자료를 통한 동이의 연원 등을 살폈다.

박선미는 황하 중류와 하류 지역의 역사지리적인 소개와 함께 이 주변에서 발견된 고고학 자료를 정리했다. 이를 통해 황하로 이어지는 지역의 선사문화에 대한 개괄적인 흐름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박재복은 동이 관련 문자자료를 검토하여 이(夷)의 연원과 개념의 분지(分枝) 과정을 살폈다. 그는 갑골문·청동기 명문·유가 경전·제자백가 등의 기록을 정리하여 보여줌으로써 동이를 구성한 다양한 집단을 소개했다.

왕청은 황하 하류에서 발전한 신석기문화를 소개했다. 그는 산동대학 고고학과에 재직하면서 다수의 유적을 직접 발굴했는데, 이 책을 통해서 다양한 유적과 유물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소개했다. 그는 산동 지역의 신석기 문화와 청동기문화를 모두 동이가 남긴 물질문화로 볼 수 있다는 관점을 갖고 있다.

데이빗 코헨은 산동 지역의 초기 청동기문화인 ‘악석문화(岳石文化)’를 검토하면서 중국의 동이에 대한 인식론적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는 산동 지역 고고학을 전공한 학자로 여러 차례 이 지역 유적조사에 참여하기도 했는데, 후대의 동이를 몇 천 년 앞선 신석기시대로 소급시켜 특정 문화와 일대일로 연결시키는 경향을 비판했다. 그 대신 산동 지역의 선사문화를 통해 이 지역

에서 활동했을 주민들의 역동성에 대한 이해를 촉구하고 있다.

독자들은 1부를 통해 산둥 지역의 고고학 자료를 역사학적으로 해석하는 데에 다른 견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산둥 지역의 선사문화를 모두 동이로 보는 중국 학계의 연구방법과 이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구미 학계의 문제 제기는 우리의 선사문화를 이해하는 데에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

2부는 하북성을 포함한 산둥 지역과 이에 이웃한 요동·한반도 등 지역의 고고학 자료를 비교, 검토한 글로 구성했다.

이영문은 이 세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지석묘를 다루었다. 동북아시아의 지석묘를 두루 답사하며 조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세 지역의 지석묘 문화에 나타나는 차이점과 공통점을 살펴보았다. 같은 지석묘 문화권이지만 지석묘의 형식과 출토유물을 통해 나타나는 다양한 종족집단의 존재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청규는 한반도와 요동에서 발견된 중국 계통의 동주식검, 하북성과 산둥 지역에서 발견된 한반도 계통의 비파형동검과 세형동검을 검토하고, 이들 지역 간에 이루어진 교류의 양상을 살폈다. 황해를 사이에 두고 해로와 육로를 통해 오갔을 물자와 인구의 이동을 통해 각지의 청동검이 타 지역에 어떻게 전달되고 받아들여졌는가를 이해하고자 했다.

심재연은 한반도에 철과 철기가 언제 등장하고 어떻게 제작되었는가를 북방 지역과의 상호작용 측면에서 검토했다. 그동안 철기는 한군현을 통해 한반도 남부로 전해졌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 글은 이러한 단선적인 전파를 비판했다. 그 대신 중앙아시아와 연해주 등에서 조사된 가장 이른 시기의 철기에 주목하고 한반도 동북부를 통한 철기의 유입 가능성을 새롭게 제기했다.

이유표는 중국 학계의 동이에 대한 인식과 연구경향을 검토했다. 이를 통해 중국 학계가 상(商)의 동이기원설, 상과 동이의 관계, 주(周)와 동이의 관

계를 어떻게 정립해왔는지, 이 과정에서 나타난 오류는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제기했다.

동이는 한국고대사를 이해하는 중요한 주제다. 동이를 통해서 우리 민족이 주변을 어떻게 인식했는가를 알 수도 있으며, 우리 민족문화의 형성과정을 비추어볼 수도 있다. 이는 동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전제로 한다. 이에 재단은 그 첫 단계로 산둥 지역의 동이를 알아보고자 연구를 기획했다. 산둥 지역 현지조사, 중국 전문가와의 간담회, 제3자인 구미 학자를 포함한 서울에서의 국제학술대회는 동이에 대한 여러 견해를 모으고 새롭게 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

각종 토론회와 학술대회에서도 그렇듯이 책을 구성한 글에서도 필자들 간의 견해차가 확연히 드러난다. 그만큼 동이 연구가 쉽지 않다는 의미다. 그러나 국내외 전공 학자들과 꾸준한 학제적 연구를 통해 동이의 실체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다. 재단은 앞으로 동이 연구의 두 번째 단계로서 우리 고대국가가 속한 '동북동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동이를 둘러싼 여러 논점들을 정리하고 우리의 자료를 좀더 객관화시키고 국제화시키는 작업을 하고자 한다. 이것이 동아시아사 속에서 우리 고대사를 바로 알리는 데에 중요한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

2018년 1월

필자들을 대표하여 박 선 미

발간사 • 4

서문 • 6



1부

중국 산둥 지역 동이문화

황하 중·하류 지역 선사문화와 주민 • 박선미

고고학 자료와 주민 — 18

황하 유역의 역사지리적 배경 — 21

황하 중·하류 지역의 선사문화 — 24

황하 중·하류 지역의 선사문화와 동이 — 42

전래문헌과 출토자료로 본 동이의 연원 • 박재복

중국문명의 원류와 동이 — 47

전래문헌에 보이는 동이 — 50

출토자료에 보이는 동이 — 63

동이 개념의 역사적 변천 — 79

고고학 자료로 본 동이문화 • 왕칭

동이의 개념과 범위 — 81

신석기시대의 동이문화 — 83

중국 청동기시대 초기의 동이문화 — 124

산둥 지역 동이문화의 의의 — 149

일러두기

- 한글맞춤법은 국립국어원 규정에 따랐다.
- 중국 인명 및 지명 등은 우리 한자음으로 읽어 표기했다.
- 일반 독자를 대상으로 이해가 어려운 단어에 원어를 병기했다.
- 중국식 한자는 모두 우리식 한자로 수정했다.
- 도면의 한자와 영문 등은 독자들의 이해를 위해 한글로 번역했다.
- 유물 명칭 등은 한글명이 아닌 한자명으로 통일했다(예를 들면, 용범·타제석기·심발 등).
- 동양 책명에는 『 』, 논문에는 「 」를 사용했으며, 서양 책명에는 이탤릭체, 논문에는 “ ”를 사용했다.
- 기원전은 각 연도(시기)에 표시하고, 기원후는 생략했다.

초기 청동기시대 악석문화와 동이 · 데이빗 코헨	
동이 관련 논의에서의 문제점 —	151
초기 국가 단계의 사회와 악석문화 —	154
악석문화의 발견 —	155
악석문화에 대한 인식의 문제점 —	159
지역유형과 편년 —	160
악석문화와 중국의 청동기시대 —	163
악석문화의 취락과 사회·정치적 발전 —	166
복골·문자·의례 —	174
악석문화 단계에서 동이의 정체성은 존재했는가? —	179
종족이론(Ethnicity Theory)과 동이의 정체성 —	180



2부

산동·요동·한반도의 교류

중국 요동·산동 지역과 한국의 지식묘 · 이영문	
동북아시아의 지식묘 형태와 분포 —	188
중국 지식묘의 현황과 특징 —	191
한국 지식묘의 형식과 특징 —	201
한·중의 지식묘 비교 —	211
동북아시아 지식묘 문화의 공통성과 지역성 —	231
동검을 통해 본 산동과 한반도 및 주변 지역 간의 교류 · 이청규	
한국과 중국 동검의 상호 전래 —	235
비파형·세형 동검의 하북·산동 지역으로의 전이 —	237
동주식 동검의 요서 지역으로의 전이 —	247
동주식 동검의 요동·한반도로의 전이 —	253
동검을 통해 본 한·중 간의 교류 —	264
과제와 전망 —	269

한반도 철기의 또 다른 기원: 북방의 철기 및 철 생산 · 심재연	
동아시아 지역의 철기 유입과 생산 —	270
한반도의 철기 유입에 대한 여러 견해 —	273
중원과 초원지대의 철기 제작 양상 —	275
연해주의 초기 철기문화 —	323
삼강평원의 철기문화 —	338
한반도 철기 제작기술 전래의 새 견해 —	342
중국 학계의 동이 연구와 인식 · 이유표	
중국의 동이에 대한 인식과 최근 연구 —	346
상족의 동이기원설 검토 —	350
동이와 상과의 관계 —	354
동이와 서주의 관계 —	365
동이와 중원 왕조의 전쟁 원인 —	372
연구결과의 분석 및 과제 —	377

참고문헌 · 380

찾아보기 · 402

역사적 순간도 있었다. 그러나 동이문화는 점차 쇠퇴하고, 주류문화에서 서서히 물러나는 과정을 겪는다. 이 과정은 동이문화와 화하문화의 상호 작용과정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동이문화는 산둥 지역에서 서주문화가 발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그로 인해 산둥지구의 고고문화도 발전할 수 있었다. 동시에 동이문화의 일부 토기와 청동기가 중국 내륙의 중원으로 전해져서 화하문명의 예제 정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한편 고문헌에 기록된 한대(漢代) 및 그 이후 동북아시아에서 활동한 ‘동이’도 흥미롭다. 이들 동이와 주대 이전부터 주로 산둥 지역에 분포했던 동이 사이의 문화적 연원관계에 대해서는 연구가 더 필요하다.

한대 이후 산둥 지역은 한에 포괄되었고, 동이문화는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다. 그러나 ‘동이’라는 개념은 여전히 존재하는데, 『삼국지(三國志)』·『후한서(後漢書)』 등의 문헌에 ‘동이열전(東夷列傳)’이 그것이다. 여기에 중국 동북 지역, 한반도, 일본 등에 존재했던 부여·고구려·동옥저·읍루·예·한(삼한)·왜 등이 편목으로 들어 있다.

필자는 이것을 한제국 건립 후 화하문화가 변천하여 한문화가 되고, 동시에 외부로 확산된 결과로 판단한다. 또한 한의 중앙정부와 유학자들이 ‘천하위복(天下威服)’의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동이’의 개념을 한문화권 외에 적용한 결과이며, 따라서 이 속에 인위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한다.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자료를 도외시하고 단순히 관련 문헌기록만 무조건적으로 신뢰하여, 일방적으로 한대 이래 동북아시아의 동이와 주대 이전 동이의 문화적 연원관계를 강조해서는 곤란하다. 이는 고고학 및 문헌의 기록과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관련 학자들의 과학적이고 정밀한 연구를 기대한다.



초기 청동기시대 악석문화와 동이

동이 관련 논의에서의 문제점

초기 청동기시대 악석(岳石)문화는 기원전 1900(혹은 1800)~기원전 1450년경 황하 하류 유역에서 발견된다. 지금까지 약 200여 개 악석문화 유적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실제 발굴된 유적의 수는 매우 적다. 취락이나 묘지에 관해서도 거의 알 수 없다. 현재 악석문화 유적이 ‘동이(東夷)’에 속한다는 인식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신석기 또는 초기 청동기시대의 집단들 사이에서 사회·정치적(Socio-Political), 문화적으로 ‘동이’라는 정체성이 뚜렷하게 존재했다고는 확신하기 어렵다. 동이의 정체성이 산둥(山東) 또는 황하 하류 유역 집단들 사이에서 형성·발전되었다고 본다면, 최소한 서주(西周, 기원전 1045~기원전 771년) 시기가 되어서야 출현했다고 보아야 한다.¹

1 다음 논문 참조. David Joel Cohen, 2001, *The Yueshi Culture, the Dong Yi, and the Archaeology of Ethnicity in Early Bronze Age China*, Doctoral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Cambridge,

중국 고고학 연구의 문화사적·역사지리학적 패러다임² 안에서, 고고학자들은 청동기시대의 대부분 문화를 초기 명문(銘文)이나 기원전 1000년대 후반에 전승된 문헌에서 언급된 사회·정치적 집단을 동일시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반적으로 악석문화를 곧 동이문화로 여기면서, 동시에 신석기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산둥용산(山東龍山)문화와 대문구(大汶口)문화가 동이의 대표적 물질문화라고 추측한다. 이렇게 문헌 자료를 근거로 악석문화를 동이문화라고 파악하기 위해서, 동이가 초기 문헌에 나타난 방국(方國)이나 수많은 이(夷) 집단 등 소집단과 정치체들을 모두 포함하는 거대한 사회·정치적 실체라고 해석했다.

이러한 포괄적인 ‘동이’ 집단 개념은 문화의 흐름이나 집단 정체성의 형성과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사용되었다. 그리고 이 개념은 주로 황하하류~회하(淮河) 하류~산둥반도에 이르는 중국 동부의 광대한 지역에서 발견되는 ‘토기 형태의 공통성’을 근거로 수립되었다. 그러나 출토된 토기 형태만으로 종족 정체성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판단이며, 중국 국가형성기에 존재하던 다양한 집단 간 상호관계의 복잡성을 무시한 결론이다.

상(商) 왕조의 기원을 동방(황하 하류)문화권에서 찾고자 했던 왕국유(王國維),³ 부사년(傅斯年)⁴ (이에 K. C. Chang의 주장도 포함) 등의 논의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다. 또 작고한 추형(鄒衡)⁵ 교수와 그 지지자들(대다수

MA, Department of Anthropology.

2 Lothar von Falkenhausen, 1993, "On the historiographical orientation of Chinese archaeology", *Antiquity* 67(257), pp.839-849.

3 王國維, 1921, 『殷卜辭中所見先公先王考』 卷9, 觀堂集林(1971, 『殷卜辭中所見先公先王考一卷』, 藝文印書館 재간행).

4 傅斯年, 1935, 『夷夏東西說』, 『慶祝蔡元培先生六十五歲論文集』 下冊, 歷史語言研究所集刊外編第一種, 北京: 歷史語言研究所, 1093~1134 等; 傅斯年, 1996, 『傅斯年選集』, 天津: 天津人民出版社, 247~292 等.

5 鄒衡, 1980, 『夏商周考古學論集』, 北京: 文物出版社.

중국 고고학자들은 토기 유형을 근거로 상이 동방에서 기원했을 가능성을 배제한다. 이들은 문헌 기록의 해석에 근거하여 이 시기에 활동했다고 추측되는 동이 집단과 악석문화를 단지 토기의 유형학적 기준만으로 파악하여 동일시한다. 또한 초기 청동기시대의 동이 집단이 같은 시기 하(夏)·상(商) 집단과 지속적으로 대립했다고 파악하면서도, 동이라는 집단의 성격과 정체성이 어떤 과정으로 형성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논의하지 않는다. 단지 토기 형태의 동일성만을 근거로 악석문화 관련 유물이 출토된 지역이 선상(先商) 왕실의 중심 구역이거나 상의 종교적 중심인 대읍상(大邑商)일 가능성⁶을 외면하고 있다.

초기 청동기시대 동이의 정체성은 토기 형태의 공통성에 따른 관점, 즉 문화사적 관점이 아니라 민족적 경계의 형성⁷과 문화정체성이론⁸을 바탕으로 한 인류학적 관점에서 고찰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이 문제는 이론적 수준에서 물질문화의 탄생 및 운용과 정체성 사이의 복합적인 관계를 고려하면서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통해 상(商)의 정체성과 대치되는 통합적인 동이의 민족적 정체성이 초기 청동기시대 황하 하류 유역 집단들 사이에 존재했음을 명백히 밝힐 수 있는 증거가 최소한 서주대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얻었다.⁹ 동이는 그 이전까지는 뚜렷한 정체성을 보이지 않았다. 즉 ‘스스로를 동이로 인식한 집

6 다음 논문 참조. Robert E. Murowchick, and David J. Cohen, 2001, "Searching for Shang's beginnings: Great City Shang, City Song, and collaborative archaeology in Shangqiu, Henan", *The Review of Archaeology* 22(2), pp.47-61.

7 Fredrik Barth(editor), 1969, *Ethnic Groups and Boundaries*, Boston: Little Brown: "Introduction", In Fredrik Barth(editor), *Ethnic Groups and Boundaries*, Boston: Little Brown, pp.9-38.

8 Siân Jones, 1997, *The Archaeology of Ethnicity: Constructing Identities in the Past and Present*, London: Routledge.

9 David Joel Cohen, 2001, *The Yueshi Culture, the Dong Yi, and the Archaeology of Ethnicity in Early Bronze Age China*, Doctoral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Cambridge, MA, Department of Anthropology.

단'은 악석문화가 붕괴된 이후 최소 4세기가 지나서야 비로소 존재했다고 보아야 한다.

초기 국가 단계의 사회와 악석문화

악석문화의 분포지역은 대부분의 연구자¹⁰가 그 기원이라고 생각하는 산둥용산문화의 범위보다 약간 넓다. 대개 유적은 교동(膠東)반도, 발해(渤海)만 도서 지역, 강소(江蘇) 및 안휘(安徽) 북부, 서쪽으로는 기현(杞縣)에 이르는 동부 하남(河南) 등을 포함한 산둥반도 전역과 요동반도 일부 지역¹¹에서 발견된다.

이 문화의 사회발전 단계는 용산문화의 복합수장사회(複合酋長社會)와 하남 중서부 지역의 정주(鄭州) 상성(商城), 언사(偃師) 상성, 소쌍교(小雙橋) 유적 등의 이리두(二里頭)·이리강(二里岡) 하층·상층 문화기의 초기 국가 단계 사이에 있는 과도기에 해당한다. 중국 학계의 추형과 그 제자들이 선 왕조 시기의 상으로 인식하는 '선상(先商)'문화(필자는 이 용어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라고 지칭하는 하북(河北) 남부와 하남 북부의 지역문화 단계와 중첩된다. 물질문화적 특성을 보면, 악석문화와 하남의 다른 문화 지역들이 사회·정치·종교·문화적으로 활발히 상호교류했음을 관찰할 수 있다.¹²

이리두·정주·안양 등에서 초기 도시문명의 특징을 지닌 악석문화의 흔적(대형 성벽 취락, 청동기 제작, 발전된 의례체계, 문자체계 등)이 발견되었

지만, 확인할 수 있는 흔적이 제한적이다. 공간적으로 위계화된 대형 취락, 대규모 건물, 지배층 무덤, 공방 등을 살필 수 있는 발굴자료가 아직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석문화가 이리두·정주·소쌍교 등 도시 중심지와 상호교류했다는 증거, 그리고 용산문화 단계부터 계속된 악석문화의 흐름을 보여주는 대규모 성벽 취락의 존재 등을 고려해보면, 악석문화가 상당한 수준의 사회·정치적 복합사회 단계와 문화적 생산 단계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서는 추가 발굴을 기대한다.

악석문화는 복합수장사회인 산둥용산문화를 직접 계승, 발전시켜¹³ 국가 단계의 사회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최초의 도시, 즉 국가 단계의 사회가 그 서쪽에서 출현했으므로, 악석문화의 역할은 황하 하류 유역의 용산문화 단계에 있던 사회·정치 체제의 붕괴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¹⁴

악석문화의 발견

악석문화의 유물은 1920년대 발굴조사과정에서 출토되었다. 요동반도 현장조사과정에서 당시에는 비자와(貔子窩)로 알려진 두 유적, 즉 단타자(單砮子)와 고려채(高麗寨) 유적의 유물 가운데 일부가 악석문화의 것이었다.¹⁵ 또한 1933년 일본 고고학자들이 요동반도에서 악석문화 또는 이와

10 樂豐實, 1997, 「論岳石文化的來源」, 『海岱地區考古研究』, 濟南: 山東大學出版社, 348~363쪽.

11 徐昭峰, 2012, 「試論岳石文化北向發展態勢」, 『考古與文物』 2, 14~19쪽.

12 樂豐實, 2006, 「二里頭遺址中的東方文化因素」, 『華夏考古』 3, 46~53쪽.

13 L. Liu and X. Chen, 2012, *The Archaeology of China: from the Late Paleolithic to the Early Bronze 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4 方輝, 2003, 「岳石文化衰落原因蠡測」, 『文史哲』 3, 139~143쪽.

15 Kosaku Hamada, 1929a, *Hishika: Minami Manshū Hekiryūkaban no senshi jidai iseki, Tōhōkōgaku sōkan kōshū 1*, Tōkyō: Tōhōkōgakkai(濱田耕作, 1929a, 『貔子窩: 南滿洲碧流河畔の先史時代遺跡』, 東方考古學叢刊甲種第1冊); Kosaku Hamada, 1929b, *P'i-tzu-wo: Prehistoric*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유물을 추가로 발견했다. 요령성 여순(旅順)시 쌍타자(雙砵子) 적석묘에서 존형기(尊形器)와 버섯형 손잡이가 있는 뚜껑 등 전형적인 악석문화의 특징을 가진 토기가 출토되었다.¹⁶ 역사어언연구소(歷史語言研究所)의 안양(安陽) 발굴단은 1930~1931년에 산둥성 역성(曆城)현[지금의 장구(章丘) 현] 용산진(龍山鎮) 성자애(城子崖)유적을 발굴했다.¹⁷ 이 유적 하층에서 새로운 신석기문화가 발견되었는데, 당시 이를 ‘흑도문화’라 불렀다. 흑도문화는 현재 ‘용산(龍山), 산둥용산, 고대 용산문화’로 알려져 있다. 당시에는 인식하지 못했지만, 악석문화유물들도 성자애 하층 용산문화유물 가운데서 발굴되었다. 이후 1990년대에 성자애유적이 새롭게 발굴되면서 악석문화기의 판촉 성벽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로써 용산문화와 악석문화를 층위적으로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¹⁸

또한 1960년에 전형적인 악석문화 유적이 평도(平度)현의 동악석촌(東岳石村)에서 발굴되었다.¹⁹ 현재까지 가장 잘 알려진 악석문화 유적인 산둥 사수(泗水)현 윤가성(尹家城)유적은 1973년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발굴되었다.²⁰ 그 후 층위적으로 용산문화와 상문화 사이의 유물을 ‘윤가성 2

기 문화’라고 분류하게 된 것은 악석문화의 고유한 유형학적 편년 실체를 확인한 전환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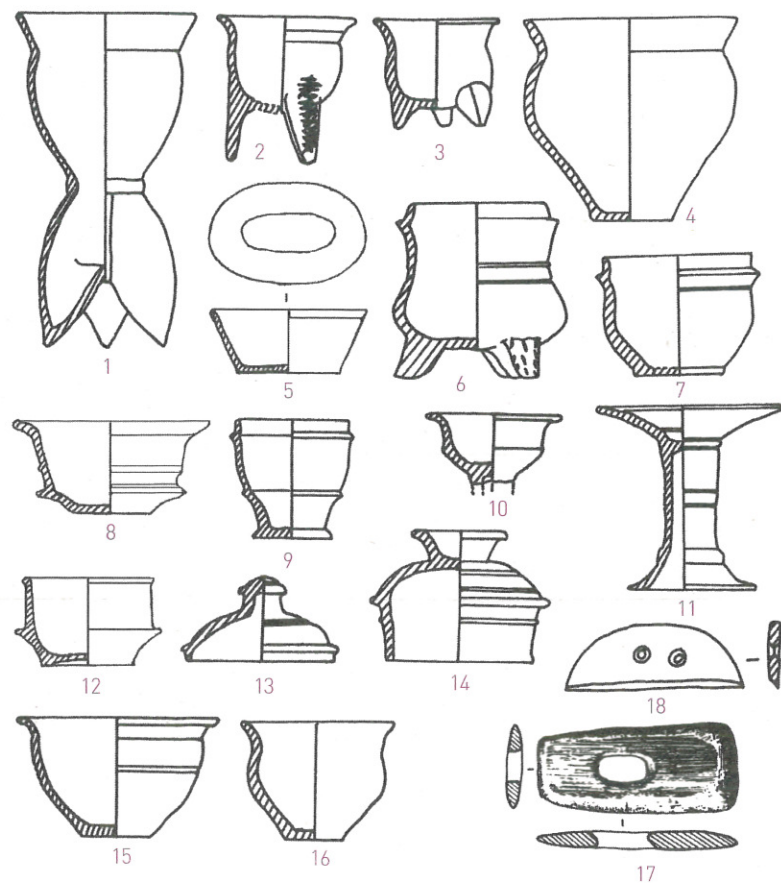
1970~1980년대에 발굴된 유적으로는,²¹ 산둥 모평현(牟平縣) 조격장(照格莊)유적,²² 하택현(荷澤縣) 안구고퇴(安邱堽堆)유적,²³ 청주시[靑州市, 당시는 익도현(益都縣)] 학가장(郝家莊)유적,²⁴ 연대(煙臺)시 지수(芝水)유적,²⁵ 장구(章丘)현 왕추관(王推官)유적,²⁶ 하남 동부 녹읍현(鹿邑縣) 난태(樂台)유적,²⁷ 기현(杞縣) 녹태강(鹿台崗)유적²⁸ 등이 있다.

엄문명(嚴文明)²⁹은 산둥용산문화 말기에 대한 연구를 통해 동악석유적에서 발견된 유물을 토대로 ‘악석문화’라는 명칭을 사용할 것을 처음으로 제안했다. 그는 악석문화의 특징을 “토기 기벽이 매우 두껍고 상대적으로 회색 토기와 흑갈색 토기가 많다. 흑색 토기는 대부분 회색 태토이며, 용산문화에서 보이는 매우 얇게 빚은 아름다운 흑도[蛋殼黑陶]는 보이지 않는다. 토기 종류는 주로 언(甗) 삼족기, 평저, 권족, 또는 삼족의 존형기, 권족의 두(豆), 쌍복분(雙腹盆), 관(罐), 뚜껑 등이 있으며, 일부 토기의 표면은 진사가 칠해져 있거나 채색되어 있다. 석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조개껍질처럼 날이 약간 오목하고 등이 약간 볼록한 형태의 반달칼이다. 이 문

Sites by the River Pi-liu-ho, South Manchuria, Archaeologia Orientalis I, Tōkyō and Kyōto: The To-koko-gaku-kwai, or the Far-Eastern Archaeological Society.

- 16 N. Egami, et al., 1934, "A neolithic site at Shuang-ta-tzu-shan near Port Arthur", Manchuria, *JAST* 49.
- 17 傅斯年 等, 1934, 『城子崖』, 南京: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 Chi Li, et al., 1956, *Ch'êng-Tzu-Yai: The Black Pottery Culture Site at Lung-Shan-chen in Li-Ch'êng-Hsien, Shantung Province*, Translated by Kenneth Starr, Yale University Publications in Anthropology 52,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18 山東省考古研究所, 1990, 「城子崖遺址又有重大發現—龍山岳石周代城址重見天日」, 『中國文物報』7月26日, 北京: 張學海, 1993, 「海岱地區史前考古若干問題的思考」, 『中國考古學會第九次年會論集』, 北京: 文物出版社, 1~19쪽.
- 19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山東發掘隊, 1962, 「山東平度東岳石村新石器時代遺址與戰國墓」, 『考古』10, 509~518쪽; 樂豐實, 1997, 「岳石文化的分期和類型」, 『海岱地區考古研究』, 濟南: 山東大學出版社, 319쪽.
- 20 山東大學歷史系考古專業, 1980, 「山東泗水尹家城遺址第一次發掘」, 『考古』1, 16~17쪽.

- 21 樂豐實, 1997, 「岳石文化的分期和類型」, 『海岱地區考古研究』, 濟南: 山東大學出版社, 319쪽.
- 22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山東發掘隊·煙臺市文物管理委員會, 1986, 「山東牟平照格莊遺址」, 『考古學報』4, 447~478쪽.
- 23 北京大學考古系商周組·山東省河澤地區文展館·山東省河澤市文化館, 1987, 「荷澤安邱堽堆遺址發掘簡報」, 『文物』11, 38~42쪽.
- 24 吳玉喜, 1984, 「益都縣郝家莊 新石器時代遺址」, 『中國考古學年鑑·1984』, 118쪽.
- 25 張江凱, 1984, 「煙臺市芝水商代遺址」, 『中國考古學年鑑·1984』, 120~121쪽.
- 26 山東省文物考古研究所, 1996, 「山東章丘市王推官莊遺址發掘簡報」, 『華夏考古』, 4.
- 27 河南省文物研究所, 1989, 「河南鹿邑樂台遺址發掘簡報」, 『華夏考古』1.
- 28 鄭州大學考古專業·開封市文物工作隊·杞縣文物管理所, 1994, 「河南杞縣鹿台崗遺址發掘簡報」, 『考古』8, 673~682쪽.
- 29 嚴文明, 1981, 「龍山文化與龍山時代」, 『文物』6, 41~48쪽.



자료 1 악석문화의 전형적 토기 및 석기
 1. 언 2~3. 정 4. 관 5. 주형기 6. 삼족관 7. 자모구관 8. 분 9. 존형기 10~11. 두
 12. 항 13~14. 뚜껑 15. 분 16. 우 17. 돌괭이 18. 돌칼
 (5·8·12. 왕신, 1994 17. 조조홍, 1984 1~4·6~7·9~11·13~16·18. 장취련, 1997)

화의 주민은 하(夏) 이전, 하와 같은 시기, 그 이후의 이(夷) 집단으로 추정된다"고 요약했다(자료 1).

악석문화에 대한 엄문명의 언급은 이것이 전부지만, 이 언급은 새로운 유형학적·문화사적 연구를 촉발시켰고 이후 악석문화의 지역유형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는 중국의 초기 및 원사 시대

의 틀에 들어맞는 '동이'를 찾는 중요한 열쇠가 되었다. 이후 조조홍(趙朝洪)은 『예기(禮記)』·『후한서(後漢書)』·『좌전(左傳)』 등 고대 문헌 구절들을 근거로 '족속 분석'³⁰을 하여, 악석문화의 전반적인 분포가 동이라는 씨족집단의 활동 범위·구역으로 보이는 지역과 일치함을 밝혔다. 이전에도 물론 하(夏)·상(商)·동이(東夷)의 구체적인 역사지리 연구가 진행되었지만,³¹ 이 연구에서도 악석문화라는 고고학적 개념은 동이를 개념화하고 확인하는 데 활용되었다. 또한 악석문화의 절대연대와 상대연대는 "하·상 왕조에게 때로는 우방이자 정치적으로 강력한 적수였으며, 민족적으로 독특한 사회·문화적 집단인 동이"에 관한 단편적인 기록들을 역사학적으로 해석하는 데도 활용되었다. 동이와 고고학적인 문화의 관련성은 악석문화에 대한 논의, 이리두문화, 선상(先商)문화, 이리강 하층·상층 문화, 하가점(夏家店)하층문화 등 주변의 같은 시기에 발전한 고대문화에 대한 논의에서 대부분 공통 주제가 되었다.

악석문화에 대한 인식의 문제점

악석문화는 같은 시기 그 서쪽에 자리 잡은 이리두문화·선상문화와의 유형학적 차이에 근거하여 '동이'의 문화로 인식되었다. 이 지역에 수백 개에서 많으면 수천 개의 크고 작은 정치체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음에도,³² 초기 청동기시대에 오직 세 개의 주요 사회·정치적 집단이 활동했

30 趙朝洪, 1984, 「有關岳石文化的幾個問題」, 『考古與文物』 1, 92~99쪽.

31 傅斯年, 1935, 「夷夏東西說」, 『慶祝蔡元培先生六十五歲論文集』 下冊, 歷語言研究所集刊外編第一種, 北京: 歷語言研究所, 1093~1134쪽; 傅斯年, 1996, 『傅斯年選集』, 天津: 天津人民出版社; 蒙文通, 1933, 『古史甄微』, 上海: 商務印書館; 徐旭生, 1943(1985), 『中國古史的傳說時代』, 北京: 文物出版社.

32 Kwang-chih Chang, 1983, *Art, Myth, and Ritual*,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다는 해석에 근거한 구분이다. 게다가 이러한 문화결정론에는 하(夏)·선상(先商)·동이(東夷)라는 세 집단 사이에서 나타난 집단 정체성이 다른 집단과 서로 다른 토기를 제작하도록 유도했다는 가정이 전제되어 있다. 이러한 유형학적·문화사적 접근방식을 통해 그 연관성에 대한 어떠한 고찰도 없이, 토기 형식이라는 한정된 범주의 자료가 사회·정치적, 문화적 집단의 정체성을 대표한다고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악석문화의 소멸에 관한 설명도 유사한 양상이다. 여러 유적을 살펴보면 악석문화 상층에서 이리강 하층·상층 문화 토기가 발견되는데 이를 중국 학계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즉 이리강 토기는 상 왕조를 대표하는 유물이며, 상의 토기가 악석문화 상층에서 출토되는 이유는 상이 세력을 확장하면서 악석문화를 붕괴시켰고, 이로써 상의 주민이 동이의 주민을 대체했다는 것이다. 나아가 상이 군사적 영향력을 산둥 지역까지 확장한 것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이러한 해석도 토기 양식이 사회·정치적 정체성을 대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다. 또한 역사적 문헌 기록이 악석문화처럼 넓은 영역 안에서 상의 이주, 군사적 정복, 정치적·영토적 확대를 통하여 인구나 문화를 완전히 대체했다는 가설을 뒷받침해주지 못한다는 점도 문제다.

지역유형과 편년

1980~1990년대 악석문화 유적이 더욱 많이 발굴되면서 지역유형에 대한 구분이 이루어졌다. 악석문화의 지역유형은 현재 7가지로 파악된다. 기본적으로 각 지역유형을 대표하는 주요한 문화 유적이 있는데, 연구자들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난풍실이 제시한 악석문화 7개 유형이 일반적

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자료 2).³³

가. 조격장유형: 산둥반도를 포함한 산둥 동부³⁴

나. 윤가성유형: 문하(汶河)와 사하(泗河) 유역의 태산(泰山) 남부 지역을 포함한 산둥 중남부

다. 학가장유형: 산둥 북부로, 추형은 성자애와 추가장(鄒家莊)유적을 포함
라. 안구고퇴유형: 산둥 서부 및 하남 동부 안구고퇴, 녹대강, 청량산(淸涼山)의 세 하부 유형으로 세분

마. 토성(土城)유형: 산둥 동남부의 기하(沂河) 및 술하(沭河) 유역

바. 왕추관유형: 산둥 북서부(즉 산둥 제남 부근, 성자애 단계)

사. 만북(萬北)유형: 강소 북부와 안휘 서부의 회하 북부, 하모둔(下廟墩)유형으로도 지칭³⁵

이러한 지역유형 구분에도 불구하고 채봉서(蔡鳳書)³⁶는 악석문화 내에 서 가장 뚜렷한 지역적 구분은 산둥 동부와 서부 지역의 차이이며, 이러한 구분은 하와 상의 문화적 상호작용 범위(서쪽에 한정)와 중원문화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받지 않은 산둥반도의 독특한 문화발전 궤적과 일치한다고 주장한다.

방사성탄소연대 편년이 제대로 확인된 것은 별로 없다. 그러나 토기 순서 배열법, 이리두·이리강 하층 및 상층, 은허(殷墟) 상문화 등과 교차편년

33 樊豐實, 1997, 「岳石文化的分期和類型」, 『海岱地區考古研究』, 濟南: 山東大學出版社, 318~347쪽.

34 모든 연구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아니나, 추형은 악석문화의 전형을 보여주는 유적인 동악석촌유적을 포함한다.

35 高廣仁, 2000, 「岳石文化的社會成就與歷史地位」, 『海岱區先秦考古論集』, 北京: 科學出版社, 180쪽.

36 蔡鳳書, 1993, 「初論岳石文化」, 張學海 編, 『紀念城子崖遺址發掘60周年國際學術討論會文集』, 濟南: 齊魯出版社, 254~265쪽.



자료 2 | 악석문화의 지역유형(왕신, 1994; 난풍실, 1997b; 점선은 구릉지대를 표시)

하면 상당히 신뢰할 만한 연대를 얻을 수 있다. 방휘가 편년한 것은 악석문화가 이리두 2기부터 초기 은허기까지 존재하지만 대부분 지역에서는 악석문화가 이리강상층문화기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³⁷ 이는 악석문화가 대부분 지역에서 기원전 1800~기원전 1450년 시기에 번창했음을 의미

37 方輝, 1998, 「岳石文化的分期與年代」, 『考古』 4, 69쪽.

한다. 이를 기원전 1900년으로 소급하면 용산문화와 악석문화의 전환기를 포착할 수 있다.

또한 악석문화의 지역유형을 보면, 각 지역에서 발견되는 악석문화유형 내의 많은 요소들이 그에 선행하는 용산문화유형에서 주로 발견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악석문화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거의 동시에 시작된 것처럼 보인다. 단순히 한 중심지에서 각 지역으로 확장된 것이 아니라, 대부분 범지역적으로 문화 간 소통 및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자생적으로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200여 곳이 넘는 악석문화 유적이 알려져 있지만(2001년의 논문에서 186곳), 이중 30여 곳만 발굴조사되었다. 게다가 정식 발굴보고서도 대부분 출간되지 않았다. 정식 발굴보고서가 발간된 유적을 포함, 발굴된 모든 유적을 살펴보면 면적이 상대적으로 좁았으며, 악석문화유물을 포함한 지역도 그리 넓지 않다.

악석문화와 중국의 청동기시대

판촉토성의 취락, 청동야금술, 의례용 토기 생산, 점복의 실시, 문자 등을 포함한 악석문화 양상을 보면, 이 문화가 중국의 초기 청동기문명의 특징을 다수 포함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상당히 제한적인 추정만 가능하다. 왜냐하면 지배층의 존재 등 사회적 계층화의 증거(부장품이 풍부한 무덤이나 대형 건물지 등)가 아직 확실하게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악석문화는 황하 하류 지역에서 산동용산문화의 복합수장사회³⁸가 끝난 후에 등장

38 Anne P. Underhill, 1991, "Pottery production in chiefdoms: the Longshan Period in northern China", *World Archaeology* 23(1), pp.12-27; Li Liu, 1996, "Settlement patterns, chiefdom

하기 때문에, 악석문화를 잘 이해해야만 북부 중국의 초기 국가형성기에 이 지역의 사회·정치적 발전 궤적을 잘 이해할 수 있다.

성읍

불평등한 매장 방식에서 알 수 있듯이, 용산문화기 동안 사회적 차별화의 증가 및 지배계층의 출현, 취락의 위계화 등이 다양한 수준으로 정치적·의례적 중심지인 성읍과 함께 등장한다.³⁹ 안타깝게도 악석문화의 취락 유형과 관련한 자료가 매우 적다. 이리두문화나 초기 상문화 유적 모델을 따르다면, 사원·궁전, 전문 공방, 사회 계층화를 보여주는 큰 묘지, 저장 구덩이와 다른 의례 활동의 증거, 대규모의 성벽으로 둘러싸인 취락 등이 악석문화에서도 존재했으리라고 예상할 수 있다. 악석문화 유적에서는 소수의 작은 무덤과 소형 건축물만 발견된 상태지만, 초기 청동기시대 모델로 예상되는 여러 지표들도 발견되었다.

variability, and the development of early states in North China", *Journal of Anthropological Archaeology* 15(3), pp.237-288; Li Liu, 2000, "The development and decline of social complexity in North China: some environmental and social factors", *Bulletin of the Indo-Pacific Prehistory Association* 20, pp.14-34.

- 39 Anne P. Underhill, 1991, "Pottery production in chiefdoms: the Longshan Period in northern China", *World Archaeology* 23(1), pp.12-27; Anne P. Underhill, 1992, "Regional growth of cultural complexity during the Longshan period of northern China", In C. Melvin Aikens and Rhee Song Nai (eds.), *Pacific Northeast Asia in Prehistory*, Pullman, Washington: Washington State University Press, pp.173-178; Anne P. Underhill, 1994, "Variation in settlements during the Longshan period of Northern China", *Asian Perspectives* 33(2), pp.197-228; Anne P. Underhill, 1996, "Craft production and social evolution during the Longshan Period of northern China", In Bernard Wailes(editor), *Craft Specialization and Social Evolution: In Memory of V. Gordon Childe*, Philadelphia: The University Museum of Archaeology and Anthropology, University of Pennsylvania, pp.133-150; Li Liu, 1996, "Settlement patterns, chiefdom variability, and the development of early states in North China", *Journal of Anthropological Archaeology* 15(3), pp.237-288; Li Liu, 2000, "The development and decline of social complexity in North China: some environmental and social factors", *Bulletin of the Indo-Pacific Prehistory Association* 20, pp.14-34; 高廣仁, 1996, 「說「丘」-城的起源一議」, 『考古與文物』3, 26~30쪽.

용산문화기에 산둥 지역에서 20개가 넘는 성벽 취락이 발견되었고, 악석문화기의 성벽 취락은 7개 정도만 확인되었다. 용산문화기의 성은 면적이 1만~11만㎡ 정도로 대부분 작다. 그러나 임치시(臨淄市)의 전왕(田旺)유적(15만㎡), 치평현(莒平縣) 교장보(敎場鋪) 성자애유적(20만㎡), 양곡현(陽谷縣)의 경양강(景陽崗)유적(35만㎡) 등 비교적 큰 성지가 산둥 지역에 분포한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대형의 용산문화기 성지에서 드물지만 악석문화 시기의 성지가 중복 발견된다. 성자애(17만~20만㎡)·정공(丁公)·전왕·경양강이 대표적이며 교장보유적도 일부는 악석문화기 성지일 가능성이 있다. 사가(史家), 정도(定陶)의 십리포북(十里鋪北)유적과 강소 감유현(贛榆縣)의 등화락(藤花落)유적에서는 매우 작은 악석문화 성지가 발견되었다. 대부분 앞 시기의 용산문화 성벽에 부분적으로 악석문화기의 성벽이 추가되거나, 부분적으로 보수된 유적이다. 정도유적의 경우 3만㎡의 성벽이 악석문화기에 만들어져 상문화기까지 사용되었다.⁴⁰

악석문화기의 성읍은 용산문화기의 성읍보다 큰 경향이 있지만, 정주의 상 성읍(기원전 1600년경 축조 시작)은 면적이 300만㎡에 이른다.⁴¹ 이 시기가 되면 황하 중류 지역에서 도시화(사회지배층을 위한 대규모 정치·의례 중심지라는 중국 학계의 의미에서)가 확립된다. 정주의 상 성벽은 이리두문화 하층에서 시작되는데, 이는 악석문화 말기와 같은 시기다. 일부 악석문화의 성벽은 상대(代) 정주유적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성숙한 성벽 축조기술을 보여준다. 수평을 이룬 판축 토층이 목조 틀과 기저부 도랑에 형성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악석문화기에는 용산문화기보다 직선으로 가파르고 더 높은 내외의 성벽을 축조할 수 있었다. 이것이 가장 잘 보존

40 山東省文物考古研究所, 2016, 「山東定陶十里鋪北遺址發掘重要收穫—完善魯西南地區史前文化序列, 發現岳石和晚商城址」, 『中國文物報』2月26日, 8면.

41 北京大學歷史系考古教研室商周組, 1979, 『商周考古』, 北京: 文物出版社, 59쪽.

되어 있는 곳이 성자에 성벽이지만 이쉽게도 전체 높이가 얼마인지는 알 수는 없다. 성벽이 갖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악석문화 성벽이 공식적으로 중국 학계에 보고된 바가 없다.⁴²

악석문화의 성벽이 용산문화 성지에서 중복되어 발견되는데, 이러한 형식은 소수의 대형 취락에 집중되는 어떤 형태의 정치적 통합을 시사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짐작에 불과하며 악석문화기의 취락 관련 고고학 자료가 더 확보되어야 명확히 알 수 있다. 성자에⁴³ 같은 악석문화기 성읍은 물이 채워진 환호가 있거나 자연 하천으로 둘러싸여 있어 방어력을 높이는 형태다.⁴⁴ 이러한 환호 성읍은 초기 청동기시대에 시작되어 중국 왕조사 전 시기 동안 계속된다.

악석문화의 취락과 사회·정치적 발전

현재 가장 잘 알려진 악석문화 유적은 산동 사수현의 윤가성유적이다. 주변 하천보다 14m가량 높은 언덕 위에 위치하며 면적은 약 4,000km² 이상이다.⁴⁵ 지금까지 알려진 악석문화 유적은 대부분 윤가성의 입지와 유사하다. 유적이 위치해 있는 언덕은 자연 구릉이 아닌 수천 년간 쌓아온 인

42 山東大學歷史系考古專業教研室 編, 1990, 『泗水尹家城』, 北京: 文物出版社; 張學海, 1993, 『海岱地區史前考古若干問題的思考』, 『中國考古學會第九次年會論集』, 北京: 文物出版社, 1~19쪽; 任相宏, 1996, 『岳石文化的發現與研究』, 許曉東 編, 『中國考古學會第八次年會論文集』, 北京: 文物出版社, 117~118쪽; 樂豐實, 1997, 『岳石文化的分期和類型』, 『海岱地區考古研究』, 濟南: 山東大學出版社, 320, 337~338쪽; 高廣仁, 2000, 『岳石文化的社會成就與歷史地位』, 『海岱區先秦考古論集』, 北京: 科學出版社, 185쪽.

43 徐基, 1993, 『試論岳石文化』, 『遼海文物學刊』 1, 72쪽.

44 高廣仁, 1996, 『說“丘”一城的起源一議』, 『考古與文物』 3, 29쪽.

45 山東大學歷史系考古專業教研室 編, 1990, 『泗水尹家城』, 北京: 文物出版社, 2쪽.

공 언덕으로, 서남아시아의 텔(tell)유적과 비슷하다. 악석문화의 취락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진행된 바가 거의 없다.⁴⁶ 다만 서로 인접된 악석문화 유적에 몇 가지 단서가 존재한다. 중국 학계의 서기는 악석문화의 취락이 산동 연주현(兗州縣)의 조왕하(趙王河) 유역(윤가성유형 지역)에 20개, 산동반도 지역(조격장유형 지역)에 28개, 성자애유적 동쪽 반경 20km 지역(학가장유형 지역)의 9개 유적처럼 일부 지역에 밀집해 분포한다고 서술했다.⁴⁷ 그러나 이 유적들은 대부분 발굴되지 않은 상태라 자세한 유형을 알 수 없다. 다만 성자애유적에서 크고 작은 취락이 발견되어 정치적 통제나 행정적 수준을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유리(劉莉)⁴⁸의 주장처럼 악석문화를 산동용산문화가 붕괴되기 직전 마지막 단계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는 악석문화의 토기가 산동용산문화보다 조잡하고 토기 형식도 소수인 점(이리두문화도 이와 유사하지만, 이를 유리는 점증하는 정치적 중앙화에 따른 수공업 전문화와 생산의 표준화의 증가를 시사한다고 주장), 사치품의 결핍(악석문화의 무덤은 전혀 조사되지 않았고 용산문화의 무덤에서는 사치품이 발견됨), 그리고 악석문화기 동안 산동 지역에서 취락의 수가 뚜렷하게 감소한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한다. 또한 악석문화 유적의 감소가 용산문화기 이후의 인구 감소를 시사하는 것으로 보는데,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유리의 주장처럼⁴⁹ 성벽 유적이 발견되는 지역에서는 악석문화가 산동

46 다음 논문 참조. 高江濤·龐小霞, 2013, 『岳石文化時期海岱文化區人文地理格局演變探析』, 『考古』 11, 48~58쪽; 史本恆, 2013, 『水文和地貌條件對膠東半島聚落選址的影響』, 『華夏考古』 4, 34~45쪽.

47 徐基, 1993, 『試論岳石文化』, 『遼海文物學刊』 1, 68쪽.

48 Li Liu, 2000, "The development and decline of social complexity in North China: some environmental and social factors", *Bulletin of the Indo-Pacific Prehistory Association* 20, pp.28-29.

49 Li Liu, 2000, "The development and decline of social complexity in North China: some environmental and social factors", *Bulletin of the Indo-Pacific Prehistory Association* 20, p.29.

용산문화와 같은 사회·정치 조직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정치적 복잡성을 상실’한 것일까? 현재로서는 단정하기 어렵다. 악석문화에 어떠한 형태로건 ‘몰락’⁵⁰이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지만, 아직 그 몰락의 과정을 온전히 파악하기엔 퍼즐 조각이 부족하다.

사회·정치적 궤적을 논할 경우 산동 지역의 상문화 또한 고려해야 한다. 제남(濟南) 대신장(大辛莊), 청주(靑州) 소부둔(蘇埠屯) 등 대형 무덤에서 순장된 회생과 명문, 청동기, 전차 등이 발견된 사실로 보아, 하남의 상 왕조 지배층 유적에서 보이는 사회·정치적 통제와 유사한 국가 단계의 구조가 악석문화 직후에 자리 잡고 있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지금까지 산동 지역에서 알려진 상문화 유적은 400여 곳이다.⁵¹ 더구나 악석문화와 마찬가지로 산동 지역의 상문화기에 존재했던 ‘중심지’라고 할 만한 대형 유적의 수는 용산문화기보다 적다. 그렇다면 악석문화기에 실제로 침체와 쇠퇴가 있었는가? 아니면 사회·정치 체제가 상문화기에 산동 지역에 보이는 국가 단계의 사회 구조로 진화하고 있는 과정인가? 앞으로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주거지와 무덤

악석문화의 건축과 주거 구조 및 조직에 관한 고고학 증거는 매우 적다. 현존하는 소량의 자료는 대부분 용산문화기 건축양식의 전통이 악석문 시기까지 계속 이어졌음을 보여준다.⁵² 확인된 주거지는 1~3개의 방으로 구성된 단순한 구조이며, 지배계층이 존재했음을 시사하는 대규모 건축

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악석문화와 같은 시기인 이리두유적·정주유적에서 보이는 것처럼 사회 지배계층의 정치적 권력과 권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새로운 건축양식을 사용했거나 건축적 혁신이 존재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악석문화 묘지가 발굴된 사례도 거의 없어서 사회조직, 수공업 전문화, 장거리 교역, 의례 등에 대한 양상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대문구문화유적·용산문화유적에는 대형 무덤이 확인되었지만, 악석문화에 해당되는 무덤의 수가 매우 적다. 2001년에 무덤 12기가 발견되었고, 윤가성유적에서 인골이 흩어진 채 구덩이만 몇 곳 확인되었을 뿐이다.⁵³

수공업 기술

용산문화에서 악석문화로 이행했음을 알려주는 항목에는 청동야금술의 확산, 채색토기의 발전, 새로운 석기 형태의 출현 등이 있다. 정교한 옥기 생산의 몰락, 조잡한 토기 생산 등도 특징적이다.

몇 곳에서 출토된 청동기를 통해 청동야금술이 확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청동기의 존재는 고고학자들이 악석문화를 초기 국가 단계로 보는 중요한 이유이다.⁵⁴ 6곳의 유적에서 청동기(구리합금 포함)가 출토되었는데, 주로 소형 도구와 장신구였다. 청동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 토제용범 주조기술의 규칙적인 사용, 금속유물 출토 수의 증가(윤가성 악석문화층에서 금속유물 14점 발견) 등이 모두 악석문화의 야금술이 용산 시기보다 발전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자료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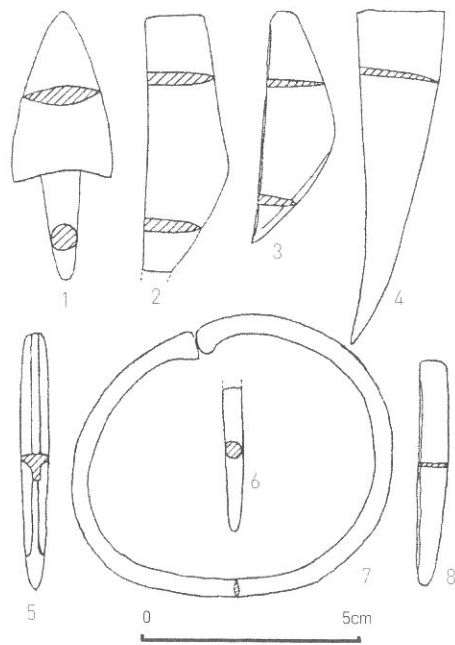
50 方輝, 2003, 「岳石文化衰落原因蠡測」, 『文史哲』 3, 139-143쪽.

51 山東省文物考古研究所, 2000, 「山東章丘西河遺址1997年發掘簡報」, 『考古』 10, 7쪽.

52 다음 논문 참조. David Joel Cohen, 2001, *The Yueshi Culture, the Dong Yi, and the Archaeology of Ethnicity in Early Bronze Age China*, Doctoral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Cambridge, MA, Department of Anthropology.

53 David Joel Cohen, 2001, *The Yueshi Culture, the Dong Yi, and the Archaeology of Ethnicity in Early Bronze Age China*, Doctoral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Cambridge, MA, Department of Anthropology.

54 徐基, 2007, 「夏時期岳石文化的銅器補遺—東夷式青銅重器之推考」, 『中原文物』 5, 42~46, 77쪽.



자료 3 악석문화 청동기(산동 사수 윤가성 출토)
1. 화살촉 2~4. 삼각형 칼 5~6. 송곳 7. 고리 8. 손칼
(고광인, 2000)

악석문화에 청동예기를 주조했다는 정황 증거가 있지만, 팔찌와 장신구 몇 점을 제외하면 출토유물은 기본적으로 소형 손칼, 송곳, 끌 등이 있을 뿐이다. 이리두유적 1기에서는 옥기는 발견되지 않았고 청동손칼 2점만 발견되었다.⁵⁵ 이리두 2기에서는 옥기 6점, 소형 칼 5점, 송곳 1점이 발견되었고, 무덤에서 청동방울이 출토되었다. 3기가 되어서야 비로소 다양한 형태의 청동예기와 청동기시대의 공통적인 특성을 보이는 특별한 형태의 의례용 옥기가 출현한다.

55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1999, 『嶧師二里頭』, 北京: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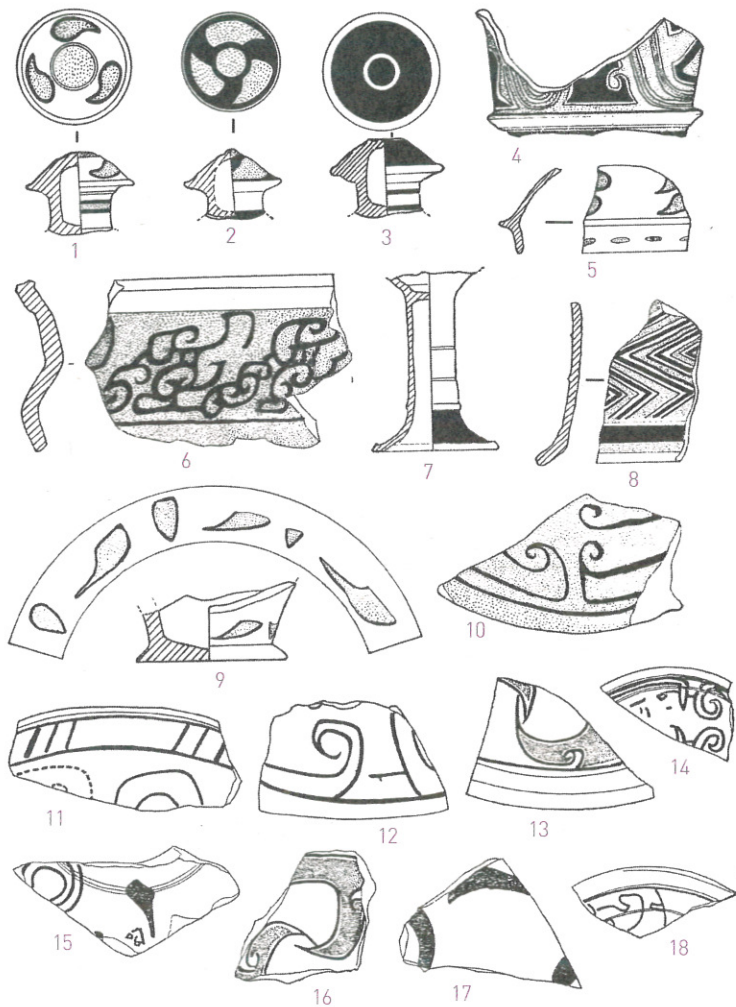
윤가성·조격장(照格莊)·고자평(姑子坪)·학가장(郝家莊)·청량산(淸涼山)·녹태강(鹿台崗)에서 금속유물이 출토되어, 주조 청동기를 포함해 구리를 소재로 한 다양한 수공예품이 요동반도를 제외한 악석문화 전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다. 주조와 관련된 유구·유물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금속유물을 분석한 결과 주조기술은 초보적이었다. 산화 광석이 환원되면서 금속에 남게 되는 불순물 때문에 형성된 의도치 않은 합금일 가능성이 높았다. 의도적 합금기술은 초기 단계라, 주석이나 납이 합금된 구리는 주석과 납의 함량이 매우 높은 편이었다.

채색토기

악석문화에는 용산문화 토기 전통과는 달리 채색토기가 존재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앞 시기의 대분구문화에도 채색토기가 있지만 산동 지역에서는 용산문화기의 채색토기가 발견되지 않았다.⁵⁶ 악석문화에 이르러 서야 지역 전체 범위에서 채색토기가 발견된다. 악석문화에서는 '정선된 태토로 만든' 마연토기에서 채색 장식이 발견된다. 도안은 적색의 진사로 칠해지거나 백색과 적색, 또는 적색 테두리가 있는 백색(또는 분홍)이다. 일반적인 형태는 원형 또는 방형 모서리의 선형 장식, 십엽형, 갈고리형, 삼각과도문 등이 있다(자료 4). 채색은 존(尊)·두(豆)·관(罐)·개(蓋) 등의 기종에서 발견되는데,⁵⁷ 이 토기들은 악석문화의 의례용기일 가능성이 있다.

56 李權生, 1992, 「中國의 岳石文化의 起源について」, 『古代文化』 6, 13쪽.

57 嚴文明, 1985, 「長島縣北莊新石器時代遺址」, 『中國考古學年鑑·1985』, 157~158쪽; 嚴文明, 1998(1985), 「夏代的東方」, 『史前考古論集』, 北京: 科學出版社, 306~318쪽; 嚴文明, 1998(1984), 「論中國的銅石并用時代」, 『史前考古論集』, 北京: 科學出版社, 315쪽.



자료 4 악석문화 채색토기(축척 부동)
1~10. 산둥 사수 윤가성 출토(山東大學歷史系考古專業教研室 編, 1990)
11~18. 모평 조격장 출토(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山東發掘隊·煙臺市文物管理委員會, 1986)
(검정 부분은 적색, 점선 부분은 백색, 하얀 부분은 회백색 태도를 표현)

석기

대문구문화와 용산문화에서 석기는 표면을 완전히 마연하고, 구멍을 매끈하고 동그랗게 갈아 뚫는다. 이러한 특징이 악석문화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고, 대신 석기에 구멍을 뚫는 경우 양면에서 찍거나 때려서 만든 크고 조잡하고 불규칙한 형태의 구멍이 보인다.⁵⁸ 가래와 도끼 등 악석문화 석기는 보통 완전히 마연되지 않아, 떼 흔적이 편평한 표면에 그대로 보인다. 그러나 날카로운 작업용 날은 매끈하게 마연되어 있다.⁵⁹ 복부와 등부 표면은 거칠어도 날이 잘 마연되어 있다는 것은, 겉모양보다 실용과 효율성에 관심이 더 있었음을 반영한 것일 수 있다.

악석문화의 표지적인 석기로 괭(鐮, 팽이처럼 생긴 기능을 알 수 없는 장방형 석기), 두세 개의 구멍이 있는 반달칼, 가래를 들 수 있다. 괭은 장방형이며 길이는 15~25cm(큰 것은 30cm), 너비는 10~20cm, 두께는 0.7~1.2cm이다.⁶⁰ 괭은 악석문화의 특징적인 도구로서 상대적으로 많이 발견되지만 산둥 동부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드물게 발견되는데, 그 기능은 명확하지 않다. 악석문화 양식의 괭은 정주의 소쌍교 초기 상문화 유적에서도 발견되었다.⁶¹ 소쌍교유적은 백가장(白家莊) 시기로 편년되는 상왕실의 의례 복합유적인데,⁶² 이리강상층문화 후기 하남성 단계다.⁶³ 악석

- 58 樂豐實, 1997, 「岳石文化的分期和類型」, 『海岱地區考古研究』, 濟南: 山東大學出版社, 321쪽.
59 蔡鳳書, 1993, 「初論岳石文化」, 張學海 編, 『紀念城子崖遺址發掘60周年國際學術討論會文集』, 濟南: 齊魯出版社, 254~265쪽; 任相宏, 1996, 「岳石文化的發現與研究」, 許曉東 編, 『中國考古學會第八次年會論文集』, 北京: 文物出版社, 110~119쪽.
60 蔡鳳書, 1993, 「初論岳石文化」, 張學海 編, 『紀念城子崖遺址發掘60周年國際學術討論會文集』, 濟南: 齊魯出版社, 256쪽.
61 河南省文物研究所, 1993, 「鄭州小雙橋遺址的調查與試掘」, 河南省文物研究所 編, 『鄭州商城新考古發現與研究』, 鄭州: 鄭州古籍出版社, 246쪽.
62 河南省文物研究所, 1993, 「鄭州小雙橋遺址的調查與試掘」, 河南省文物研究所 編, 『鄭州商城新考古發現與研究』, 鄭州: 鄭州古籍出版社, 271쪽.
63 裴明相, 1998, 「論鄭州小雙橋遺址的性質」,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編, 『中國商文化國際學術討論會論

문화의 특징적인 유물이 상의 의례적 맥락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은 악석 문화 주민과 정주 상문화 집단 사이에 문화적 접촉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점에서 대단히 흥미롭다.⁶⁴

옥기와 터키석

옥기와 기타 보석류의 유물은 악석문화에서는 매우 드물게 발견된다. 이는 문화적 선호보다는 발굴된 무덤유적이 적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운가성에서 깨진 옥환 1점과 터키석 2점이 관옥과 함께 출토되었다.⁶⁵ 조격장에서는 구슬과 펜던트 등 터키석 2점이 유백색 마제유공석기와 함께 발견되었다.⁶⁶ 이 외 유적에서는 옥기나 터키석이 발견되지 않았다.

복골 · 문자 · 의례

청동예기와 점복술을 사용하여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의례로써 권력을 정당화하는 양상은 중국 초기 국가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특징이다.⁶⁷ 그러나 악석문화의 의례 행위를 보여주는 직접적인 자료가 드물다. 중국

文集』, 北京: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166쪽.

64 EDXRF 분석을 통해 형식학적으로 악석문화에 속하는 토기는 소쌍교유적에서 이리강 시기에 현지에서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李宏飛·李素婷·崔劍鋒·王寧·曾曉敏·宋國定, 2015, 「小雙橋遺址岳石文化風格陶器成分分析」, 『中原文物』 3, 116~120쪽). 왜 이러한지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이 유적들을 통해 두 문화 지역 사람들 사이의 밀접한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65 山東大學歷史系考古專業教研室 編, 1990, 『泗水尹家城』, 北京: 文物出版社, 190쪽.

66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山東發掘隊·煙臺市文物管理委員會, 1986, 「山東牟平照格莊遺址」, 『考古學報』 4, 467쪽.

67 Kwang-chih Chang, 1983, *Art, Myth, and Ritual*,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의 장광직은 의례 행위를 주장했으나 악석문화 사회 지배계층의 의례 행위를 보여주는 직접적인 고고학 자료는 전혀 없다. 다만 다른 시기나 다른 문화에서 수행된 의례와 비교해보면서, 악석문화 지배계층이 수행했으리라 추측되는 의례 행위의 맥락에서 발견 가능한 요소에 대한 가설을 세워볼 수는 있다. 이를 통해 악석문화의 청동기와 채색토기가 의례적 기능을 수행했을 가능성을 상정해볼 수 있다. 이 점에서 악석문화에서 의례와 관련 있을 것으로 보이는 유물은 복골(卜骨) 하나다. 악석문화에서는 가공된 복골이 발견되었는데, 부호가 새겨진 가장 오래된 복골도 발견되었다.

복골

점승의 어깨뼈와 거북 배갑질을 불에 그을려 점을 치는 의례는 안양(安陽) 상(商)문화의 대표적 특징으로, 이런 방식은 점복술의 가장 완숙한 형태를 보여준다.⁶⁸ 상의 점복술은 신석기시대 점술에 뿌리를 두고 있다. 악석문화의 복골을 그 이전의 용산문화와 그 이후의 상문화에서 발견된 사례와 비교함으로써 점복 의례체계가 어느 정도 발전했는가를 알 수 있다.

용산문화와 초기 상문화에서는 점복을 위하여 소의 어깨뼈를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했다. 다음으로 돼지와 양, 사슴, 거북 껍질 순이다. 상 후기의 점복술에서는 균열이 만들어지도록 특별히 가공한 소의 어깨뼈와 거북 배갑질을 주로 사용했다. 신석기시대의 점복에는 어깨뼈를 자연 상태 그대로 사용했지만, 신석기시대 후기와 초기 상대(代)의 뼈에는 홈이 있으며 어깨뼈 가지 부분을 제거하고 남은 부분을 마연해 사용한 흔적이 있다. 상대 후기에는 편평한 표면을 만들기 위해 불필요한 부분들을 모두

68 David N. Keightley, 1978, *Sources of Shang Histor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제거한 어깨뼈, 뒷면이나 안쪽에 흠을 뚫어서 다듬은 거북 껍질을 사용했다. 점복과정에서 흠에 열을 가해서 뼈의 반대쪽에 독특한 균열이 생기도록 한 것이다.⁶⁹

악석문화의 복골은 소·양·염소·사슴·돼지의 어깨뼈와 거북 껍질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용산문화 및 초기 상문화의 복골과 유사하다. 중국 고광인에 따르면, 악석문화에서 발견된 복골의 수는 용산문화기에 비해 많다.⁷⁰ 용산문화에서는 점복과정에서 뼈의 표면에 열을 직접 가했지만, 악석문화에서는 이에 더하여 원형의 흠을 파고 얇게 다듬었다. 이러한 흠은 정연하게 줄을 이루거나 세 개씩 무리를 이루는데, 일부 연구자들은 이를 3회 점복(세 번 가운데 두 번)으로 점패를 읽는 상의 관습과 관련이 있으리라 추측하고 있다. 또한 일부 타원형으로 흠을 판 사례도 있는데, 용산문화의 선례와 비교할 때 악석문화의 점복 양상이 상대 후기의 완숙한 단계로 진전하는 과정에 있었고 고도로 전문화된 발전 단계에 있었음을 보여준다.⁷¹

악석문화 복골은 여러 유적에서 발견되었다. 윤가성에서 사슴과 소의 어깨뼈 파편 3점이 발견되었는데, 원형의 흠과 불에 탄 흔적이 있었고 타원형 흠은 없었다.⁷² 조격장에서는 12점의 복골이 발견되었다. 사슴 어깨뼈 6점, 양·염소 어깨뼈 4점, 돼지 어깨뼈 2점이고, 윤가성 복골처럼 흠과 불에 탄 흔적이 있다.⁷³ 산둥 지수의 악석문화층에서 2점의 복골이 발견되

69 David N. Keightley, 1978, *Sources of Shang Histor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70 高廣仁, 2000, 「岳石文化的社會成就與歷史地位」, 『海岱區先秦考古論集』, 北京: 科學出版社, 178~194쪽.

71 樂豐實, 1997, 「岳石文化的分期和類型」, 『海岱地區考古研究』, 濟南: 山東大學出版社, 32쪽; 高廣仁, 2000, 「岳石文化的社會成就與歷史地位」, 『海岱區先秦考古論集』, 北京: 科學出版社, 185~186쪽.

72 山東大學歷史系考古專業教研室 編, 1990, 『泗水尹家城』, 北京: 文物出版社, 197쪽.

73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山東發掘隊, 煙臺市文物管理委員會, 1986, 「山東牟平照格莊遺址」, 『考古學報』 1986年 4期, 477쪽.

었는데, 돼지 어깨뼈였다.⁷⁴ 1~4기의 이리두문화에서 발견되는 복골과 비교하면 소·양·염소·돼지의 어깨뼈를 사용하고 서로 다른 크기의 원형·타원형의 불탄 흔적이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이리두문화의 복골에서는 파거나 뚫은 흠을 볼 수 없고, 수량도 적어 14점의 어깨뼈만 출토되었다.⁷⁵

흠을 파서 가공한 복골의 존재는 악석문화의 점복체계가 상대의 완숙한 점복체계로 가는 과정에 있었고 이리두문화보다 더욱 발전한 형태였음을 보여준다. 산둥 환태현(桓台縣) 사가(史家)유적의 악석문화에 속하는 구덩이에서 발굴된 글자가 새겨진 복골 2점의 사례가 이를 잘 뒷받침해 주고 있다.⁷⁶ 이 복골 2점은 모두 구덩이 가장 아래층에서 발견되었다. 복골 2점은 양·염소의 어깨뼈로 확인되었다. 남은 파편에는 형태를 다듬은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열을 가한 흔적만 발견되었다.⁷⁷

1점의 유물번호는 96HSF1H:232인데 대(大)와 복(卜)으로 보이는 두 개의 부호가 새겨져 있었다. 이 두 글자는 모양이 단순하고 뼈가 깨진 가장자리에 가까워서, 어떤 글자의 일부일 가능성도 있다. 대와 복자로 보는 주장을 완벽히 신뢰하기는 어렵다. 만약 이 부호가 정말로 대와 복자라면 상 문자체계의 뿌리를 악석문화에서 찾을 수 있지만, 단순히 이 두 글자의 형태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 파편의 반대쪽에도 판독할 수 없는 글자 3개가 있다.

두 번째는 96HSF1H:226인데, 보고서에는 뼈 표면에 비교적 복잡하게

74 北京大學考古實習隊·煙臺市博物館, 2000, 「煙臺芝水遺址發掘報告」, 嚴文明 編, 『膠東考古』, 北京: 文物出版社, 122쪽.

75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1999, 『偃師二里頭』, 北京: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68, 121, 238, 332쪽.

76 淄博市文物局·淄博市博物館·桓台縣文物管理所, 1997, 「山東桓台縣史家遺址岳石文化木构架祭祀器物坑的發現」, 『考古』 11, 1~18쪽.

77 淄博市文物局·淄博市博物館·桓台縣文物管理所, 1997, 「山東桓台縣史家遺址岳石文化木构架祭祀器物坑的發現」, 『考古』 11, 15쪽.

새겨진 흔적이 있다고 간단히 언급되어 있다. 보고자는 행(幸)의 대체 형태로 해석할 수 있는 글자가 있다고 했으나 이 역시 문제가 많다. 이 글자를 어떻게 풀이할 것인지, 또 해석이 가능한 것인지를 막론하고, 이 복골이 글자가 새겨진 안양의 상 복골보다 약 200년 이상 앞선 것이라는 점은 흥미롭다. 또한 이것이 상의 의례·정치체계의 뿌리가 동쪽 지역에 있었을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사가유적의 제사 구덩이

사가유적의 복골은 1996~1997년 우물 모양의 구덩이 최하층에서 대부분 완전한 형태로 발견되었다. 모두 334점인데 악석문화 토기와 함께 출토되었다. 조사자들은 이 구덩이를 의례, 즉 제사 구덩이로 해석했다. 악석문화유물 가운데 의례와 연관되는 유물이 발견된 첫 번째 사례다. 구덩이의 윗부분은 부정형으로 길이 9.05m, 너비 7m이고 편평한 바닥까지의 깊이는 4m다. 구덩이 중앙에서는 방형의 목조구조물이 발견되었는데, 각 목재의 끝이 모서리를 지나는 우물 정(井)자 모양이다. 목조구조물은 구덩이 바닥에서 3.7m 높이에 위치한다.

조사자들은 이 유구를 ‘제사 구덩이’라고 불렀다. 복골을 비롯한 353점의 유물(주로 토기)이 그 안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가장 아래인 1.1m의 층에서 대부분 발견되었다. 판재나 나무껍질이 유물층 사이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⁷⁸ 이곳에서 334점의 거의 완전한(깨졌지만) 토기가 석기, 패각으로 만든 도구 및 복골편 등과 함께 나왔다. 토기는 우물 안에서 지질작용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깨졌다고보다는 의도적으로 깨뜨려 넣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출토된 토기는 대부분 악석문화 후기로 편년된다.

78 淄博市文物局·淄博市博物館·桓台縣文物管理所, 1997, 「山東桓台縣史家遺址岳石文化木構架祭祀器物坑的發現」, 『考古』11, 1~3쪽.

악석문화의 속성을 파악할 수 있는 유적들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가유적의 제사 구덩이는 이를 살펴볼 단서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의미있다.

악석문화 단계에서 동이의 정체성은 존재했는가?

악석문화 연구에서 중요한 주제 중 하나는 악석문화와 동이를 동일시하는 해석의 문제이다. 그렇다면 ‘동이’는 어떤 집단을 가리키는가? 동이는 원사시대(빠르면 기원전 3000년경)부터 청동기시대까지 중국 동부에 존재했던 사회문화적 집단으로 이해되고 있다. 서주(기원전 1045~기원전 771년경)의 청동기 명문과 기원전 1000년경의 문헌기록이 동이를 특정하여 언급한 사례가 있기는 하나 이보다 앞선 시기의 동이는 후대의 문헌에 ‘이(夷)’라고 분류된 여러 집단의 활동에 관한 기록을 논의하면서 도출된 것이다. 상의 갑골문에도 동이가 있었다고 추정되는 지역에 인방(人方)이라고 불리는, 방(方) 정치체의 존재가 언급되어 있다. 명문에 나타난 인(人)과 이(夷)라는 글자 사이의 유사성에 근거하여 많은 사람들이 ‘인방’이 곧 ‘동이’이거나 혹은 동이를 대표한다고 여긴다.

그러나 이렇게 동이를 신석기시대부터 안정적으로 지속된 사회적 정체성을 가진 집단으로 이해하는 것은, 대개 중국학 연구에 사회조직에 대한 인류학적 사고가 스며들었던 시기인 20세기 초의 산물이다. 이는 1920년대 초 런던과 베를린에서 수학하고 있던 부사년에게 영향을 주었다. 그는 1935년 논문에서 중국 원사 및 초기 역사시대의 화하(華夏) 집단이 동이와 대치했다는 입장을 수립했고, 이러한 대치적 해석이 여전히 오늘날 인식의 틀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대치적 해석을 통해 동이는 단일 문화로 분류되고 지속성 있는 사회적 정체성을 가진 집단으로 간주되었다. 그리

하여 동이라는 범주는 여러 방면에서 민족적 정체성과 유사하게 형성되었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중국 고고학의 문화사적 패러다임에서는 악석문화와 동이 사이에 직접적인 상호관계가 있다고 간주한다. 악석문화는 통일된 문화적 실체로 규정되어 있으며 악석문화에 속하는 문화 유물은 통일되고, 타 집단과 경계가 구획된 사회적 집단에 의하여 생성된 것으로 추정된다(이는 사회적 집단을 문화적 그릇으로 보는 본질주의적 비유로서, 이러한 견해와 대조적으로 정체성이 상황적이며 타 집단과의 경계를 형성하는 과정에 의해 생성된다는 기능주의적 관점이 있다). 전승된 역사 문헌을 근거로 하여 ‘동이’를 구분하는 경계가 있었고, 악석문화의 시기에 악석문화가 분포하는 지역에 통일된 사회집단이 존재했다고 해석한다. 중국 고고학 연구의 전통에 근거하여 틀림없이 동이의 문화였다는 것을 전제로 악석문화가 규정되고 유적들이 분류된다. 이렇게 ‘악석문화=동이문화’라는 전제로 수립된 인식들은 동이의 존재를 입증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⁷⁹

그러나 그전에 동이 집단이 존재했는지 살피는 일부터 선행되어야 한다. 즉 동이의 정체성이 존재했는지, 초기 청동기시대의 사회조직에서 뚜렷하게 드러났는지 따져야 한다. 사회적 정체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살펴보자.

종족이론(Ethnicity Theory)과 동이의 정체성

우선 종족 집단(Ethnic Group) 혹은 다른 사회조직 형태는 그 문화와 관련

79 중국 학자 추형이 제시한 ‘선상’문화 논의에는 이와 같은 순환론적 논리가 더욱 더 뚜렷하다.

된 요소에 따라 구분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⁸⁰ 간단히 말하면 민족 집단은 문화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며, 사회적 경계선이 문화의 불연속적 단위와 꼭 맞물리지는 않는다는 의미다. 따라서 문화와 사회집단의 상관관계는 간단히 파악할 수 없으며, 동시에 직통관계라고 할 수도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종족에 대한 연구는 문화적 단위의 경계를 확인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된다. 동이의 존재는 특정 문화적 속성의 밀집, 즉 연구자들이 특정 물질문화의 속성을 형식적으로 결집해 도출한 고대문화인 악석문화의 존재만으로는 증명될 수 없다. 악석문화와 동이라고 불리는 사회적 정체성 사이에(또는 ‘선상’문화와 선 왕조 시기 상문화 사이에) 직접적이고 절대적인 상호관련성이 성립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주장과는 반대로 악석문화는 동이의 문화가 아니다.

기능주의적 해석에 따르면, 동이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데 필요한 결정적 요소는 다른 집단과의 상호작용이다. 타 집단과의 상호작용 안에서 타자에 의해 뚜렷한 정체성을 스스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즉 이러한 인식은 동이 및 그와 공생적·경쟁적 상호작용을 하는 다른 사회집단과 경계를 형성하는 과정 속에서 출현하게 된다. 이런 인식은 또한 ‘공통의 조상, 가치 그리고 역사’⁸¹라는 이념에 근거를 둔다. 다른 말로 하면 동이의 정체성은 대치하는 집단과의 경쟁·상호의존·협력·공생의 관계(상보성화, 相補性化)에서 집단적 이익을 추구하는 조직이라는 의미로서 출현하는 것

80 다음 논문 참조. Fredrik Barth, 1969b, "Introduction." In Fredrik Barth(editor), *Ethnic Groups and Boundaries*, Boston: Little Brown, pp.9-38; Thomas Hylland Eriksen, 1993, *Ethnicity and Nationalism*, London: Pluto Press; Siân Jones, 1997, *The Archaeology of Ethnicity: Constructing Identities in the Past and Present*, London: Routledge.

81 Hans Vermeulen and Cora Govers, eds., 1994, *The Anthropology of Ethnicity: Beyond "Ethnic Groups and Boundaries"*, Amsterdam: Het Spinhuis, p.3.

이다. 이러한 정체성은 동이와 타 집단이 서로를 구분짓는 독특한 내용(인식된 문화, 가치, 행위 규범), 독특한 역사, 친족 계통과 조상 혈통에 대한 인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는 데 근거한다.

이러한 결정적 요소를 염두에 두고 동이의 존재에 관한 역사적 증거를 다시 살펴보자. 후대의 기록이 원사 시대와 하 왕조 시기에 동이라는 정체성이 존재했음을 시사한다고 해석될 수는 있지만, 더 신뢰할 만한 증거는 그보다 앞선 상대의 명문이다. 여기 ‘이(夷)’[또는 인(人) 등 초기 형태라고 추정할 수 있는] 글자는 북골과 청동기 명문에서 발견된다. 이 글자는 동이 지역으로 추정되는 곳의 집단들 가운데 하나인 정치체, 즉 인방(人方)을 지칭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더 크고 포괄적인 동이가 상대 지역 전체에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사용된다. 더구나 동이의 정체성은 상의 정체성과 대비되는 사회조직에서 뚜렷히 드러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초기 청동기시대 동이의 정체성은 상과 이원적인 대치의 틀로 짜여 있다. 그러나 필자는 동이의 정체성은 현대 연구자들이 구체화한 것일 뿐, 상대에는 실제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다.⁸² ‘동이’는 확장적 분류로서, 인방과 같은 하나의 정치체에 대응된다고 볼 수 없다. 정작 필요한 질문은 상이 인방과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그리고 상의 동쪽 ‘동이 지역’에 있는 많은 집단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다. 실제로는 상호의존, 연맹, 정치적 경쟁, 협력, 전쟁 등 여러 방식의 상호작용이 서로 다른 수준을 보이면서 존재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상이 인식하고 있던 자신의 역사·혈통·문화·내용에 대한 개념 또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필자는 상의 기원에 대해서는 전통적 관점을 따른다. 상이 자신의 뿌리와 문화, 조상의 혈통이 동쪽, 즉 동이로 추정되는 영역의 일부에서 기원한다고 보았음을 시사하는 증거가 여러 갈래 있다. 필자는 상이 동쪽에 있는 일정한 통일된 대치 집단과 문화적(즉 인식한 문화)·역사적으로 구분되는 집단으로 스스로를 규정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동쪽의 여러 집단과의 상호작용은 그 대치에 있어서 훨씬 더 미묘하고 유동적이며 복잡적이었다. 상과 동이보다도 훨씬 많은 씨족, 가문, 지역 정치체 등 사회집단과 서로 다른 정체성을 가진 집단이 상호교류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수많은 집단들이, 해당 지역 집단들의 관계가 상과의 관계보다 더욱 가깝다고 인식했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 따라서 동이의 정체성이 상의 정체성과 비교하여 상대의 사회조직에 뚜렷이 존재했다는 주장에 납득할 수 없다. 악석문화기에도 마찬가지로, 어느 집단도 스스로를 동이라고 인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동이의 정체성은 서주대에 출현했을 가능성이 높다. 안타깝게도 상호작용의 등식을 반쪽만 볼 수 있어서 확인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하면 서주대 동부 지역에 살던 사람들, 즉 동이 자신들이 쓴 역사적 기록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주의 명문과 문헌기록은 주가 동이의 정체성을 포괄적으로 동쪽의 ‘외부’ 집단에게 부여했음을 말해준다. 그 증거로서 이러한 집단을 지칭하면서 ‘동이’라는 완전한 단어가 명문에 처음으로 나타난다. 동이의 정체성을 주의 정체성과 대치시키는 것은 주의 사회·정치적 구조, 황실 혈통과 수도를 중심으로 집단 정체성을 파악하는 새로운 세계관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주는 그들의 국가를 중앙의 문화적으로 통합된 ‘우리’와 외부의 위험한 ‘타자’(그 동쪽에 동이가 존재)가 대척하고 있는 닫힌 문화 질서로 인식하고 있었다.

주의 정치 질서가 어떻게 동이 집단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주는 증

82 David Joel Cohen, 2001, *The Yueshi Culture, the Dong Yi, and the Archaeology of Ethnicity in Early Bronze Age China*, Doctoral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Cambridge, MA, Department of Anthropology.

거는 없다. 주의 명문은 동이가 강력한 적이면서 주 왕에게 중요한 공물을 제공하는 협조자였음을 보여준다. 외부자인 동이의 공물이 내부로 유입된 것이 내부 정치질서에서 주 왕의 입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이 조공관계는 양방향으로 작용했는데 이는 주와 동이 사이에 협상이 있었음을 암시한다. 이러한 협상·경쟁·공생의 결과 포괄적인 동이의 '민족적' 정체성이 동쪽에 있는 집단들 사이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났을 것이다. 사회적 경계선이 출현하여 동쪽에 존재하는 집단들 사이에서 스스로를 분리해내는 동시에, 스스로를 '동이'라고 식별하며 비로소 문화적·역사적으로 주와 구별된다고 인식하게 되었을 것이다. 나아가 독특한 내용·문화·행위규범·역사·조상을 가지는 주체로서 스스로를 더욱 뚜렷하게 분리해냈을 것이다.

만약 동이가 선상 시기와 상대에 존재하지 않았다면, 악석문화와 동이를 사회·정치적으로 관련지을 수 있을까? 이는 중국 고고학계의 문화사적 패러다임 내에서만 의미 있는 질문이며, 이러한 패러다임 안에서의 해결책은 역사적 이해를 수정하여 또 다른 후보 집단을 찾는 것이다. 그러나 고대문화라는 개념 자체를 보다 많이 고려해야 하며, 중국 고고학계에서 물질문화와 사회적 정체성 사이의 등치성을 부여하려는 시도가 엄격한 이론과 인식론적 고찰로써 보완될 때까지는, 고대문화와 사회·정치적 또는 문화적 집단 사이의 상호관계에 대한 논의를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는 단지 고고학자가 만들어낸 산물로, 사회·정치적 정체성과는 관련이 없다고 간주할 필요가 있다.

만약 상대나 그보다 앞선 시기에 동이의 정체성이 없었다면, 과연 황하 하류 유역의 악석문화 및 이전의 용산문화를 상의 왕실·문화·국가의 시작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악석문화가 동이문화가 아니고 동이의 정체성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상이 악석문화에서 기원했다는 해석을 도출해낸 삼단논법이 무너진다. 악석문화가 발견되는 곳에서 분명 상문화도 발견

된다. 상의 동부 기원과 선상 시기의 도시이자 의례 중심지인 대읍상(大邑商)의 위치를 고려하는 데 있어, 악석문화와 '선상'문화 등 고고학적 문화의 존재 또는 부재에 근거를 둔 주장은 소용이 없다. 이러한 고고학적 문화는 과거 사람들이 가졌던 상의 정체성 개념과는 어떤 관련성도 없다.

현 상황에 대한 이러한 평가가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해당 연구가 진전되리라는 희망은 보인다. 악석문화 관련 고고학 발견이 이루어져서, 이 초보적 연구에서 제시한 주장이 재평가되기를 기대한다. 나아가 광범위한 접촉과 상호작용(황하 유역에서의 이주·전파 포함)에 대한 고찰이 동이의 정체성에 대한 선험적 전제 없이 이루어진다면, 황하 하류 유역과 환발해 지역, 그리고 한반도 사이의 복합적인 상호작용과 영향을 보다 깊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감사의 말씀

동이에 관한 학술대회에 초대하여 이 주제에 대한 견해를 새롭게 하고 동료 참가자들과 도움이 되는 토론을 할 기회를 주신 동북아역사재단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 또한 이 논문의 논평과 번역을 맡아주신 분들께도 감사한다.